

18대 총선과 여성 : 성과와 향후 과제



모시는 글

안녕하십니까?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18대 총선과 여성: 성과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제45차 여성정책포럼을 개최합니다.

이번 여성정책포럼에서는 18대 총선과정의 여성후보 공천에 대한 평가와 함께 문제점을 분석하고, 향후 18대 국회에서 여성의원의 의정활동을 비롯한 역할을 조망하고자 합니다.

18대 총선이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에 미친 성과와 과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는 유익한 토론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바쁘시더라도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5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 장 김 경 애

행사 일정

13:30-14:00 등 록

14:00-14:10 사 회 이 수 연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인 사 말 김 경 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

14:10-14:30 주제발표 18대 총선과 여성 : 성과와 향후 과제
김 원 홍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14:30-15:30 지정토론 1 여성후보 공천과 향후 과제
이 은 재 (한나라당 18대 의원 당선자/비례대표/공천심사위 위원)
홍 미 영 (통합민주당 17대 의원)

지정토론 2 지역구 여성후보로서의 출마와 향후 과제
김 희 정 (한나라당 17대 의원/부산 연제구)
송 옥 주 (통합민주당 경기 화성 갑 후보)
이 영 순 (민주노동당 17대 의원/울산 남구 갑)
오 유 석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대표)

15:30-16:00 종합토론 참석자 전원

16:00 폐 회

목 차

▶▶ 주제발표

18대 총선과 여성: 성과와 향후 과제	2
-----------------------------	---

김원홍(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지정토론

지정토론 결과	19
---------------	----

지정토론 1 여성후보 공천과 향후 과제

이은재(한나라당 18대 의원당선자/비례대표/공천심사위 위원)

홍미영(통합민주당 17대 의원)

지정토론 1 지역구 여성후보로서의 출마와 향후 과제

김희정(한나라당 17대 의원/부산 연제구)

송옥주(통합민주당 경기 화성 갑 후보)

이영순(민주노동당 17대 의원/울산 남구 갑)

오유석(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대표)

18대 총선과 여성: 성과와 향후 과제

김원홍(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I. 18대 총선의 특징

지난 4월 9일에 치러진 제18대 총선이 지니는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겠다.

이번 총선의 특징으로 꼽을 수 있는 첫 번째 특징은 바로 이슈가 없는, 정책이 없는 선거였다는 점에 있다. 지역을 위한 뚜렷한 정책이 없었고 제시된 공약도 차별화가 안되는 문제점을 내포한 선거였다는 점이다. 유권자들의 전국적 관심을 끌 수 있는 이슈 또한 부재하였던 점도 한 몫 하였다. 지난 17대 총선의 경우를 보면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의 역풍으로 인하여 열린우리당이 수도권에서 이른바 싹쓸이를 했었고, 2006년 전국 동시지방선거는 참여 정부에 대한 찬반론과 선거과정에서 발생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피습 사건이 이슈화되어 한나라당이 수도권에서 싹쓸이를 했던 선거가 되었다. 하지만 이번 18대 총선에서 이슈가 없었던 점은 역대 최저의 투표율(46%)을 가져왔고 그나마 작년 대선부터 공약으로 이슈화 되었던 대운하 추진 공약이 이번 총선에서 몇몇 선거구를 제외하고는 당선요인으로 크게 작용하지 못했던 점은 이를 증명해 준다.

두 번째 특징으로 정당별 지지 경계선이 사라지고 있음을 보여준 선거였다는 점이다. 보수 진영으로 꼽을 수 있는 한나라당의 경우 대선 이후 끊임 없는 공천 잡음으로 결국 총선을 앞두고 친박연대, 친박 무소속 그룹 등 여권 분열로 파생한 새 정치세력들이 탄생하였고, 자유선진당은 전통 보수임을 강조하며 충청권을 기반으로 이번 선거에서 거의 교섭단체까지 구성할 수 있는 국회의원을 당선시켰다. 중도 개혁을 표방하는 통합 민주당과 창조 한국당의 경우도 그렇고 총선을 얼마 안 남겨두고 민주 노동당과 진보신당의 분열 또한 정당별 지지 경계선을 애매모호하게 만들었다고 평가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정당 성향에 따른 뚜렷한 기준을 제시 못한 정당간의 혼선으로 인하여 유권자들의 지지가 분산되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결국 보수와 진보 진영의 대결로 나타난 이번 총선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었던 점은 대선 이후 곧바로 실시된 총선이었기에 현 정부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없었던 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및 새 정부 각료인선과정에서의 국민들의 실망감의

표출은 결국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독주에 대한 견제론이나 확고한 지지로 뚜렷한 정책추진을 위한 안정론이나의 문제로 귀착되었을 뿐 가장 본질적인 요소로 평가되어야 할 정책을 보고 뽑는 선거, 인물을 보고 뽑는 선거는 찾아 볼 수 없었던 선거였다고 할 수 있다. 요컨대 이번 총선은 진보 진영의 몰락과 그에 대비되는 보수 또는 실용 보수 진영의 대약진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17대 국회에서 과반수를 차지했던 열린우리당을 계승한 현 통합민주당이 81석에 그친 반면 보수 진영을 대변하는 한나라당을 포함하여 자유선진당, 친박연대, 친 한나라 무소속 의원들이 총 202석까지 차지한 이번 총선결과가 진보 진영의 몰락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세 번째 여성의 정치참여가 지난 총선에 비해 약진한 것은 사실이나 총 41명의 여성의원 중에서 지역구를 통한 당선은 지난 17대 총선에서의 10명보다는 4명이 증가한 14명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총선에서도 역시 비례대표를 통한 여성의원의 국회 진출이 주를 이루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여성 국회의원이 전체 국회의원의 13.7%정도로 의회진출비율이 어느 정도 정체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를 하게 된다. 이런 우려를 씻을 수 있도록 여성들의 국회 진출에 대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이번 18대 총선에서의 여성의원의 현황을 중심으로 여성의 정치 참여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II. 18대 총선과 여성후보 및 여성의원 현황

2008년 4월 9일 실시된 제18대 총선은 지역구 의원 245명, 전국구 비례대표 의원 54명 총 299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였다¹⁾. 제18대 총선에서는 41명(13.7%)의 여성의원이 탄생되었다. 이는 17대 총선에서 39명의 여성 의원이 당선된 것 보다 2명이 증가한 수치이다. 하지만 총 41명의 여성의원 중에서 지역구를 통한 당선은 지난 17대 총선에서의 10명보다는 4명이 증가한 14명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총선에서도 역시 비례대표(17대 총선부터 비례대표 50% 여성할당 및 교호순번제의 실시. 지방선거의 경우 50%를 지키지 않는 경우 선관위에서 접수를 하지 않으나, 국회의원은 접수가 가능함)를 통한 여성의원의 국회 진출이 주를 이루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제18대 총선에서 지역구 및 전국구 비례대표제 여성후보 및 당선자 상황

1) 국회의원 정수에는 변함이 없었으나 17대와 달리 지역구의석이 243에서 245개로 늘었고 반면 비례대표 의석의 경우에는 56개에서 54개로 줄었음.

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구 여성의원 당선자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이번 제18대 총선의 지역구 여성후보는 전체 1113명의 후보 중 132명(11.9%)이며, 당선자는 14명(5.7%)이다. 여성 당선율은 10.6%(132명의 후보중 14명 당선)로 남성 당선율 23.5%(981명의 후보중 132명 당선)에 비하여 12.9% 포인트 낮은 상황이다. 여성후보를 가장 많이 공천한 정당은 지난 17대 총선과 마찬가지로 민주노동당이었다. 민주노동당은 이번 총선에서 245개의 선거구 중에서 지역구 여성 후보를 46명(44.6%)의 여성후보를 공천하였으나 지난 총선과 마찬가지로 당선된 여성 후보는 없었다. 다음으로 많은 여성 지역구 후보를 공천한 정당은 평화통일 가정당으로 37명의 많은 후보를 공천하였으나 이번 총선에서 신생한 정당인데다가 당에 대한 지지기반이 전무했다는 점에서 남성의원을 포함한 단 한 명의 후보도 당선시키지 못했다. 한편 국회 여당이었던 통합민주당은 245개의 지역구에서 15명(7.6%)의 여성후보를 공천하였고, 이중 4명이 당선되었으며, 제 1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은 18명(7.3%)의 여성후보를 공천하였고, 이중 10명이 당선되었다. 그 외 진보신당에서 9명, 친박연대에서 2명, 자유선진당에서 2명, 직능연합당에서 1명의 후보를 공천하였으나 지역구를 통한 여성의원의 진출은 한 명도 없었다. 여성의원의 수는 늘었으나 전체에서 차지하는 상대적인 비율은 여전히 저조했다. 국회의원 선거 지역구 여성의원 30% 권고 조항을 지킨 정당은 민주노동당을 제외한 통합 민주당과 한나라당에서는 7%대에 불과해 공천 심사에 앞서 여성의원들과 여성계가 여성후보 공천율 30%를 주장했던 것에 훨씬 못 미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하지만 민주노동당의 경우 이번 18대 총선에서 국회의원 선거 사상 처음으로 정당에게 지급되는 여성추천보조금을 받았다. 중앙선관위가 전국 지역구 245개의 15~30% 를 여성으로 추천한 정당에 보조금의 절반을 지급하는 것으로 공직선거법을 완화하면서 수혜정당이 처음으로 나온 것이다. 민주노동당이 46명(44.6%)의 여성을 공천해 가장 많은 17억7,000만원을 수령했고, 15명(7.6%), 18명(7.3%)의 여성을 공천한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각각 5억9,000여만원, 4억7,000여만 원을 지급받았다. <표 1>은 18대 총선에서의 지역구 여성 후보 및 당선자 현황이다.

<표 1> 지역구 여성후보 및 당선자

소속 정당	후보 및 지역구	당선 여부		소속 정당	후보 및 지역구	당선 여부	
통합 민주당	추미애(광진 을)	당선		민주노동당	박명희(관악 갑)		
	김희선(동대문 갑)		2등낙선		박천숙(서초 을)		
	손봉숙(성북 갑)		2등낙선		김계연(강남 을)		
	이미경(은평 갑)	당선			최형숙(강동 을)		
	송미화(은평 을)				주선태(부산전 갑)		
	박영선(구로 을)	당선			여민영(부산 남 갑)		
	김영주(영등포 갑)				신지은(부산 해운대 기장 갑)		
	이경숙(영등포 을)		2등낙선		이화수(부산 사하 을)		
	장복심(송파 을)		2등낙선		장귀선(부산 연제)		
	이현주(대구 북 갑)				조차리(부산 사상)		
	한명숙(고양 일산 동)		2등낙선		이인선(대구 중·남)		
	김현미(고양 일산 서)		2등낙선		한정애(계양 갑)		
	송옥주(화성 갑)		2등낙선		박인숙(계양 을)		
한나라당	양승숙(논산·계룡·금산)				김현정(광주 북 을)		2등낙선
	조배숙(익산 을)	당선			장연주(광주 광산 을)		2등낙선
	나경원(중구)	당선			이영순(울산 남 갑)		2등낙선
	진수희(성동 갑)	당선			김미희(성남 수정)		
	이수희(강북 을)		2등낙선		이시내(안양 만안)		
	고경화(구로 을)				최순영(부천 원미 을)		
	전여옥(영등포 갑)	당선			이혜원(부천 소사)		
	이혜훈(서초 갑)	당선			이현주(평택 을)		
	박영아(송파 갑)	당선			박미진(안산 단원 갑)		
	이계경(송파 병)		2등낙선		이은영(고양 덕양 을)		
	김희정(부산 연제)		2등낙선		신정숙(오산)		
	박근혜(대구 달성)	당선			안소희(과주)		
	정미경(수원 권선)	당선			주경희(용인 기흥)		
	박찬숙(수원 영통)		2등낙선		서미화(철원 화천 양구 인제)		
	전재희(광명 을)	당선			장우정(청주 흥덕 갑)		
	박순자(안산 단원 을)	당선			정남득(청주 흥덕 을)		
	김영선(고양 일산 서)	당선			김선애(충주)		
	김연수(남양주 을)				박상은(제천 단양)		
	주봉심(여수 갑)		2등낙선		선춘자(천안 을)		
자유선진당	이재순(구미 을)		2등낙선		한준혜(공주 연기)		
	신은경(중구)				전종덕(나주 화순)		2등낙선
민주노동당	이인숙(용산)				유현주(광양)		
	방종옥(동대문 갑)				전진숙(김해 갑)		
	김혜신(강북 을)				강선희(의령 함안 합천)		
	조현실(노원 을)				심경숙(양산)		
	강화연(은평 갑)				현애자(서귀포)		
	유선희(구로 을)				최윤주(울산 북)		
	이정미(영등포 갑)				박성희(부천 원미 을)		
	김지희(동작 을)				최현숙(종로)		
진보신당	정현정(서대문 갑)			진보신당	이인선(청주 흥덕 갑)		
	박주미(부산전 을)				김미경(여수 갑)		
	김남희(광주 서 갑)			무소속	송정문(마산 을)		
	노옥희(울산 동)		2등낙선		오순덕(은평 갑)		
	심상정(고양 덕양 갑)		2등낙선		김완자(전부 완산 을)		2등낙선

<표 2> 18대 총선 지역구 여성 후보자 및 당선자의 정당별·지역별 분포

정당 지역	통합 민주당		한나라 당		자유 선진당		민주 노동당		창조 한국당		친박 연대		진보 신당		기타 ²⁾		무소속		전체	
	후보	당선	후보	당선	후보	당선	후보	당선	후보	당선	후보	당선	후보	당선	후보	당선	후보	당선	후보	당선
서울	9	3	8	5	2		11						2		4		1		37	8
부산			1				6						1		4				12	0
대구	1		1	1			1								2				5	1
인천							2								5				7	0
광주							2						1		1				4	0
대전															1				1	0
울산							1				1		1		1				4	0
경기	3		6	4			10				1		1		13				34	4
강원							1												1	0
충북							4						1						5	0
충남	1						2								1				4	0
전북	1	1													1		1		3	1
전남			1				2						1						4	0
경북			1												2				3	0
경남							3						1		2				6	0
제주							1								1				2	0
합계	15	4	18	10	2	0	46	0	0	0	2	0	9	0	38	0	2	0	132	14
비율	7.6	6.0	7.3	7.6	2.0	0	44.7	0	0	0	4.0	0	26.5	0	15.0	0	1.6	0	11.9	5.7
후보자총수	197	66	245	131	94	14	103	2	12	1	51	6	34	0	253	0	124	25	1113	245

각 정당별 당선자 현황을 보면 우선 통합민주당의 경우 지난 총선에서 낙선했던 서울 광진을의 추미애 후보가 3선으로 정계에 복귀했으며 지역구에서의 유명세가 지속된 은평 갑의 이미경 후보(4선), 구로 을의 전 MBC 앵커 출신의 박영선 후보(재선), 전북 익산 을의 조배숙 후보(3선)가 당선의 기쁨을 맛보게 되었다. 지난 17대와 달리 새로운 여성 후보의 당선이 없었던 점은 주목할 만하다. 한나라당의 경우 총 10명의 여성위원이 탄생하였는데 대구 달성의 한나라당 전 대표였던 박근혜, 고양 일산서의 김영선 후보가 4선으로 당선됐으며, 현 한나라당 최고위원인 전재희(경기 광명 을)후보가 3선, 지역구 출신 이해훈(서울 서초 갑)후보가 재선, 17대에 비례대표로 당선되었던 진수희(서울 성동 갑)후보, 박순자(안산 단원 을)후보, 나경원(서울 중구)후보, 전여옥(영등포 갑)후보가 재선, 박영아(서울 송파 갑)후보, 정미경(경기

2) 기타 정당으로는 국민실향안보당, 기독교당, 문화예술당, 직능연합당, 통일당, 평화통일가정당, 한국사회당이 있음.

수원 권선)후보가 이번 18대 국회에 처음으로 입성하게 되었다.

총 14명의 여성 당선자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통합 민주당의 조배숙 의원과 한나라당의 박근혜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당선인들의 지역구가 모두 서울 경기 수도권에 한정되어있다는 점이다.<표 1, 2 참조> 더불어 17대 국회에서 전문성을 바탕으로 비례대표 의원으로 국회에 진입하여 여성과 사회적 소수를 위해 정치적 대변자로서 평등정치를 실현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였던 여성 의원들이 출마했지만 한나라당의 나경원(서울 중구), 박순자(경기 안산 단원 읍), 박영선(서울 구로 읍), 전여옥(서울 영등포), 진수희(서울 성동 갑)의원, 총 5명(15%)만 당선되었을 뿐이다. 지난 총선 66명의 여성 후보보다 두 배 가까운 132명의 여성이 국회의원 후보에 출마³⁾하였지만 당선율이 높지 않았던 것은 이번 총선 역시 인물선거나 정책선거를 떠나 정당 선호중심의 선거 때문이라고 분석할 수 있다. 서울 경기 지역을 제외한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의 경우 지역 정서에 따라 한나라당, 통합민주당, 자유선진당 후보들이 대부분 당선되었던 점은 여전히 지역정당의 색채를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나라 정당정치 풍토에서 전략공천을 통한 여성의원의 당선에 각 정당들이 적극적이지 못함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둘째, 비례대표제에서의 여성 의원 당선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총 54명의 비례대표 의원을 선출하는 이번 총선에서 여성후보는 27명이 당선되었다. 지역구 선거구에 비해 비례대표 여성의원수가 많은 이유는 지난 17대 총선부터 공직선거법상에 법제화되었던 50% 여성할당의 의무화 및 홀수순번 부여에 따른 결과라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지방선거의 경우 50% 여성할당을 지키지 않는 경우 선관위에서 접수하지 않도록 되어있는데,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의무사항은 아닌 점이 있다.

3) 후보자 공천이 늘어난 부분에 있어서는 평화통일가정당이 37명의 여성후보를 공천한데 기인한다고 볼 수 있음.

<표 3> 18대 총선 비례대표 여성후보자 및 당선자의 정당별 분포

정당명	전체후보자수	여성후보자수	전체당선자수	여성당선자수
통합민주당	31	15(48.3%)	15	8(53.3%)
한나라당	49	24(48.9%)	22	11(50.0%)
자유선진당	20	10(50.0%)	4	2(50.0%)
민주노동당	10	5(50.0%)	3	2(66.6%)
창조한국당	12	3(25.0%)	2	0
친박연대	14	7(50.0%)	8	4(50.0%)
국민실향안보당	4	1(25.0%)	0	0
기독교당	9	3(33.3%)	0	0
문화예술당	7	3(42.8%)	0	0
진보신당	11	6(54.5%)	0	0
평화통일가정당	13	5(38.4%)	0	0
한국사회당	2	1(50.0%)	0	0
합 계	188명	83명(44.1%)	54명	27명(50.0%)

* 전체 후보자 수 합계는 시민당 1명, 신미래당 1명, 직능연합당 4명을 포함한 수

이와 관련하여 창조한국당의 경우를 사례로 들 수 있다.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전국구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함에 있어서 50% 여성 의무할당 조항 및 남녀 교호순번제를 규정하고 있어서 홀수 번에는 여성 후보를 추천해야 하는데, 창조한국당의 경우 1번에서 4번까지 모두 남성 후보를 공천했을 뿐만 아니라 총 12명의 비례대표 후보 중 3명만이 여성 후보였다는 점, 결국 2명의 비례대표 당선자를 냈음에도 여성 의원을 배출하지 못했던 점은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할 것이다. 이번 비례대표의 경우 나타난 특징으로는 대부분 의원들이 지방의회 경력(4명), 여성단체 경력, 사회활동 경력, 국가기관 경력 등 다양한 활동을 했던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력들은 이전 비례대표들이 교수나 명망가들 후보군에서 비례대표로 선정되었던 틀을 벗어나 여성들도 다양한 활동을 펼친 후보자들이 비례대표로 선정된다는 의미를 갖는다.

<표 4>는 정당별 전국구 비례대표제 여성당선자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표 4〉 18대 총선 비례대표 여성당선자의 정당별 분포 및 주요 경력

정당	당선자	주요 경력
통합민주당 (8명)	이성남(1)	이화여대 영어영문학과 졸업, 금융감독원 검사총괄담당 부원장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최영희(3)	이화여대 사회학과 졸업, 한국여성민우회 부회장, 내일신문 대표이사 사장 겸 발행인, 부회장, 학교폭력대책 국민협의회 상임대표, 국가청소년위원회 위원장
	전혜숙(5)	영남대 약학과 졸업, 성균관대 임상약학대학원 재학, 보건의료개혁 시민연대 위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이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임감사
	전현희(7)	서울대 치의학과 졸업, 고려대 법학석사, 치과의사, 녹색소비연대 녹색시민권리센터 소장, 여성연합 미디어센터 운영위원, 대한치과의사협회 고문변호사
	신낙균(9)	이화여대 기독교학과 졸업, 미국 조지워싱턴대 교육학 석사, 한국여성유권자연맹 회장, 새정치국민회의 부총재 겸 여성특별위원회 위원장, 제4차 UN세계여성대회를 위한 한국여성NGO위원회 공동대표, 제15대 국회의원
	김상희(11)	이화여대 약학과 졸업,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장
	박선숙(13)	세종대 역사학과 졸업,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재학, 한국여성단체연합 정책위원, 청와대 공보수석, 환경부 차관
	김유정(15)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성균관대 국정관리대학원 박사 수료,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 민주당 여성국장
한나라당 (11명)	강명순(1)	이화여대 시청각교육학과 졸업, 일본 기비국제대학 대학원 사회복지학 박사, 부스러기사랑나눔회 이사, (사)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이사
	배은희(3)	서울대 미생물학과 졸업, 미국 뉴욕주립대 대학원 세포분자생물학 박사, KIST 선임연구원, (주)리젠바이오텍 대표이사, 한국바이오벤처협회 부회장, 국제협력재단 이사
	이정선(5)	한성대 동양학과 졸업, 서울시립대 사회복지학 석사, 제6대 서울시의원, 한국장애인정치포럼 이사장, 방송인
	김소남(7)	한양여대 문예창작학과 졸업, (주)척천레미콘 대표이사 사장, 바르게살기운동 중앙협의회 전국여성국장, 전국호남향우회 여성회장, 국민화합실천연대 공동대표, 고려대 경영대학원 교수회장
	이은재(9)	건국대 행정학과 졸업, 미국 클레어몬트 대학원 행정학 박사,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중앙인사위원회 위원, 한나라당 제18대 공천심사위원
	김금래(11)	이화여대 사회학과 졸업, 숙명여대 정책대학원 행정학 석사, (사)한국여성단체협의회 사무총장, 당 여성국장, (재)서울여성 상임이사
	조윤선(13)	서울대 외교학과 졸업, 미국 콜롬비아대학 LL.M.(법학석사), 한국씨티은행 부행장 겸 법무본부장, 김연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당 대변인
	손숙미(15)	서울대 식품영양학과 졸업,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대학 영양학 박사, (사)한국여성단체협의회 이사, 가톨릭대학교 교수, 제7대 경기도의회 의원, 대한영양사협회 회장
	이애주(17)	서울대 간호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병원 간호부장, 병원간호사회 회장
	정옥임(19)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고려대 대학원 국제정치학 박사, 청와대,외통부 정책자문위원, 선문대 국제유엔학과 교수, KBS 객원해설위원, KBS 라디오 진행자
	김옥이(21)	동아대 행정학과 졸업, 동국대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재향여성군인협의회 회장, 육군 제15대 여군단장, 제7대 경기도의회 의원, (사)한국여성단체협의회 감사, 이사
자유선진당 (2명)	이영애(1)	서울대 법학과 졸업, 미 하버드대 법학과 LL.M.(법학석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춘천지방법원 법원장, 변호사, 천주교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법조위원장
	박선영(3)	이화여대 법학과 졸업, 서울대 대학원 법학박사, MBC 보도국 기자, 동국대 교수, 국가청렴위원회 위원
친박연대 (4명)	양정례(1)	안양대 관광경영학과 졸업, 연세대 대학원 법학석사, 새시대 새물결 여성청년 간사
	송영선(4) ⁴⁾	경북대 영어교육학과 졸업, 미국 하와이대 정치학 박사,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 센터장, 제 17대 국회의원, 당 대변인
	김을동(5)	중앙대 정치학과 1년 중퇴, (사)백야 김좌진장군 기념사업회 회장, 전주 우석대 겸임교수, 제4대 서울시의원, 대한독립유공자협회 이사, 방송인
	정영희(7)	서울여자간호대학 졸업, 당 여성위원장
민주노동당 (2명)	곽정숙(1)	광주대 사회복지학부 졸업, 광주대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석사과정, (사)한국여성단체연합 이사, (사)한국여성장애인연합 상임대표,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공동대표
	이정희(3)	서울대 공법학과 졸업, 변호사,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공동대표, 교육인적자원부 대학교입용양성평등위원회 위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

4) 친박연대의 경우 교호순번제를 지키지 않고 1,4,5,7번 순으로 여성후보를 공천하였다.

III. 성과와 한계

이와 관련하여 18대 총선과 여성의원으로서의 진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성과와 한계를 볼 수 있다.

1. 성과

가. 비례대표 여성의원 경력을 매개로 한 지역구 여성후보 출마 통로 마련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여성 국회의원 비율이 낮은 상태에서 여성후보 발굴에 있어 여성계나 연구를 통해 의정활동 경험이 있는 비례대표 여성의원
의 다음 총선에서의 지역구 출마를 정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왔다.
이에 대하여 그간 정당들은 관심이 적었던 상황에서 이번 총선에서 그 가능
성을 엿볼 수 있었다. 실제, 2004년 실시한 17대 총선의 경우 각 당은 16대
비례대표 여성의원 16명(의원직 승계 포함) 중 5명(31.2%)을 공천하여, 2명
(조배숙 의원, 한명숙 의원)이 당선되었다. 그러나, 18대 총선에서는 비례대
표 여성의원들에 대한 지역구 공천을 확대하였고, 이중 당선율도 높아졌다는
점이다. 실제, 2008년 2월 현재 17대 국회 비례대표 여성의원(의원직 승계한
여성의원 포함)은 총 33명이었는데, 18대 총선에서 지역구에 출마를 희망한
비례대표 출신 여성 의원은 17명(51.5%)이었고, 이중 5명(29.4%)이 당선되었
다. 정당별로 출마를 희망한 비례대표 여성 의원과 당선된 사람은 다음과 같
다. 한나라당은 7명(고경화, 나경원, 박순자, 박찬숙, 이계경, 진수희, 전여옥)
의 비례대표 여성 의원을 공천하였는데, 이중 4명(나경원, 박순자, 진수희, 전
여옥)이 당선되었다.⁵⁾ 민주당은 17대 비례대표 여성 의원 중 6명(이경숙, 박영
선, 김현미, 김영주, 장복심, 손봉숙)을 공천하였는데, 이중 1명(박영선)이 당
선되었다. 민주노동당은 3명(이영순, 최순영, 현애자)의 비례대표 여성 의원을
공천하였는데, 이중 당선된 사람은 없었다. 그리고 진보신당은 1명(심상정)을
공천하였는데, 낙선하였다.

5) 한나라당 비례대표 의원 중에는 불출마한 의원은 2명(김애실·안명옥)이었고, 공천에서 탈락한 의원
은 3명(문화·김영숙·송영선)이었다. 이중 송영선의원은 친박연대로 가서 비례대표로 당선되었다.

나. 지역구 여성의원에 대한 높은 공천율과 중진급(3선 이상) 여성의원 확대

지난 17대 총선에서 지역구에 당선된 여성의원은 총 10명이었다. 18대 총선의 경우 현역 의원 교체율이 사상 최고로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17대 여성의원 중 재출마한 여성후보는 8명이었고(민주당 4명<한명숙, 김희선, 이미경, 조배숙>, 한나라당 4명<박근혜, 전재희, 이혜훈, 김희정>), 이중 5명(이미경, 조배숙, 박근혜, 전재희, 이혜훈)이 당선되어 재선율이 62.5%로 상당히 높게 나왔다. 이는 여성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하여 성실성과 전문성을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실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2004년 4월 당선이후 2006년 9월까지 수행한 남녀의원의 의정활동을 분석해본 결과 남성의원들의 발의건수는 평균 23.25건인데 비해, 여성의원은 40.42건으로 남성의원에 비해 많았고, 통과된 법률 건수도 남성의원은 5.42건인데 비해 여성의원은 6.96건으로 여성 쪽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여성의원이 남성의원에 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⁶⁾

그리고, 낙선한 3명(한명숙, 김희정, 이계경)도 근소한 차이로 2등을 차지한 것으로 보아 여성의원의 지역구 공천확대의 당위성을 엿볼 수 있었다. 실제, 경기 일산 동에 출마하였다 낙선한 한명숙 의원(43.83%)의 경우 한나라당 백성운 당선자(47.07%)와 3.24%로 낙선하였고, 부산 연제구에 출마하였던 한나라당 김희정 의원도 친박연대의 박대해 당선자(44.65%)에 비해 3.33% 적은 41.32%로 2등으로 낙선하였다. 송파 병에 출마하였다 낙선한 이계경 의원의 경우도 1등을 한 민주당의 김성순 당선자(46.96%)에 비하여 2.57% 적은 44.39%의 득표율로 낙선하였지만, 2등을 차지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통하여 국회의원 후보에 여성 후보 공천확대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 또한 이번 18대 총선에 승리함으로써 중진급 여성의원이 나왔는데, 4선의 경우 김영선 의원, 박근혜 의원, 이미경 의원, 3선의 경우 전재희 의원, 조배숙 의원, 추미애 의원이 있다.

6) 김원홍, 윤덕경, 김은경, 이현출, 최정원, Aie-Rie Lee, Kazuki Iwanaga(2006), 「17대 남녀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성차분석 및 성인지성 확대방안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미간행), p.59 참조.

<표 5> 18대 총선 지역구 여성 당선자의 선율 및 득표율

정 당	당 선 자	지 역 구		득 표 수 (득표율 %)	비 고
통합민주당	추미애(3선)	서울	광진을	23,609(46.1)	
	이미경(4선)		은평갑	33,598(45.8)	
	박영선(재선)		구로을	34,783(47.3)	17대 비례대표
	조배숙(3선)	전북	익산 갑	28,459(54.9)	
한나라당	나경원(재선)	서울	중구	23,609(46.1)	17대 비례대표
	진수희(재선)		성동갑	33,455(51.3)	17대 비례대표
	전여옥(재선)		영등포갑	35,151(43.8)	17대 비례대표
	이혜훈(재선)		서초갑	48,682(75.0)	
	박영아(초선)		송파갑	39,626(61.6)	
	정미경(초선)	경기	수원권선	37,649(41.2)	
	전재희(3선)		광명을	29,218(56.4)	
	박순자(재선)		안산단원을	24,482(52.2)	17대 비례대표
	김영선(4선)		일산 서	51,595(53.7)	
	박근혜(4선)	대구	달성	50,149(88.6)	

2. 한계점

가. 주요 정당의 여성후보에 대한 공천 저조

이번 제18대 총선의 지역구 여성후보는 전체 1113명의 후보 중 132명(11.9%)이며, 당선자는 14명(5.7%)이다. 여성후보를 가장 많이 공천한 정당은 지난 17대 총선과 마찬가지로 민주노동당이었다. 민주노동당은 이번 총선에서 245개의 선거구 중에서 지역구 여성 후보를 46명(44.6%)의 여성후보를 공천하였으나 지난 총선과 마찬가지로 당선된 여성후보는 없었다. 한편 국회 여당이었던 통합민주당은 245개의 지역구에서 15명(7.6%)의 여성후보를 공천하였고, 이중 4명이 당선되었으며, 제 1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은 18명(7.3%)의 여성후보를 공천하였고, 이중 10명이 당선되었다. 그 외 진보신당에서 9명, 친박연대 2명, 자유선진당 2명, 직능연합당에서 1명의 후보를 공천하였으나 지역구를 통한 여성의원의 진출은 한 명도 없었다. 여성의원의 수는 늘었으나 전체에서 차지하는 상대적인 비율은 여전히 저조했다. 국회의원 선거 지역구 여성의원 30% 권고 조항을 지킨 정당은 민주노동당을 제외한 통합민주당과 한나라당에서는 7% 대에 불과해 공천 심사에 앞서 여성의원들과 여성계가 여성후보 공천율 30%를 주장했던 것에 훨씬 못 미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는 첫째, 지역구 여성할당제 30% 노력 조항아래 정당의 여성발굴을 위한 노력 미비, 둘째, 공천심사위원내 여성위원 비율의 저조를 들 수 있겠다.

나. 주요 정당의 공천심사위원회에 여성위원 참여 저조

18대 총선이 지닌 특징 중의 하나는 17대 대선과 연계하여 급하게 이루어지고, 통합민주당으로 통합하는 가운데서, 후보 선출에 있어 경선은 특별한 경쟁구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공천심사위원회에서 후보를 공천하도록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의 경우 전체 공심위원 13명 중 4명을 심사위원으로 하여 당규상의 규정 30%이상인 30.8%를 차지하였으나, 통합민주당은 처음 선발 시 여성공천심사위원이 없다가 추후로 1명이 추가되어 전체 12명 중 단 1명(8.3%)만이 여성위원이었다. 더욱이, 이번 총선에서 주요정당의 지역구 여성후보 공천보장 문제가 드러나지 못한 것은 정당 내 계파간 싸움으로 인해 여성의원들에 대한 배려가 정치적 우선순위에서 밀려, 공식적으로 논의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인 것도 있다.

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역구 여성의원 입성

총 14명의 여성 당선자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통합 민주당의 조배숙 의원과 한나라당의 박근혜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당선인들이 모두 지역구가 서울, 경기 수도권에 한정되어있었는데, 이는 전략공천을 통한 여성의원의 당선에 각 정당들이 적극적이지 못함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이번 총선결과에서도 서울, 경기 지역을 제외한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의 경우 지역 정서에 따라 한나라당, 통합민주당, 자유선진당 후보들이 대부분 당선되었는데, 여전히 지역정당의 색채를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나라 정당정치 풍토를 엿볼 수 있었다.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과 같이 최소 여당 내지 제1, 2야당의 경우 당차원에서의 우세 지역(예; 한나라당은 경상권, 통합민주당은 호남권 등)에 여성후보에 대한 전략 공천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라. 여성후보 간 대결로 인한 당선 저조

지역구 여성후보 공천에 있어 한나라당은 18명의 여성후보를 공천했고, 통합민주당은 15명을 공천하였는데, 이중 전략 공천이란 이름아래, 여야간 여성후보끼리 경쟁하는 상황이 발생되었다. 실제, 서울 구로 을의 박영선(민, 47.30%), 고경화(한, 40.18%), 서울 영등포 갑의 전여옥(한, 43.75%), 김영주(민, 42.52%), 경기 고양시 일산 서의 김영선(한, 53.71%), 김현미(민, 41.84%) 등의 경우 근소한 표차이로 여성후보끼리 선거를 치렀는데, 한명의

여성의원 비율의 증가가 아쉬운 상황에서 여성후보끼리의 경쟁을 정당이 유도한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할 수 있다. 당차원에서 사전에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러한 문제가 지속될 경우 여성계 차원의 조정이 요구된다.

마. 소수정당의 비례대표 여성 할당 50% 미준수

공직선거법에 비례대표 50% 할당강제 조항을 두고 있으나, 지방선거의 경우 이를 어길시 당초 선관위에 접수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비례대표 50%를 지키지 않을 경우라고 접수가 가능한 상황이다. 이번 18대 총선에서 주요 정당들은 비례대표 여성할당 50%를 지키려 노력하였으나, 소수 정당들은 그러지 못했다. 한 예로 창조한국당의 경우 1번에서 4번까지 모두 남성 후보를 공천했을 뿐만 아니라 총 12명의 비례대표 후보 중 3명만이 여성 후보였다는 점, 결국 2명의 비례대표 당선자를 냈음에도 여성의원을 배출하지 못했던 점은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겠다. 이의 개선책이 요구된다.

바. 진보 진영의 여성후보들의 침체가 두드러짐

이번 총선의 경우 대선의 영향으로 인하여 4월에도 주요 이슈로 잔존함에 따라 지역구의 경우 민주노동당과 진보정당이 전체 여성후보의 40% 이상을 공천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1명의 여성후보가 당선되지 못하였다. 실제, 민주노동당의 경우 민주노동당은 2007년 6월 16일 중앙위원회 결정을 통하여 선출직 여성참여 확대를 위하여 “① 2008년 총선에서 광역당부별로 지역구 후보의 20%를 여성후보로 선출한다. ② 여성후보 30%를 실현한 광역당부와 해당 당부의 여성후보에 대해서 재정지원을 포함한 특별지원을 실시한다. ③ 전국 기준으로 지역구 후보의 30%를 여성후보로 선출하지 못할시, 중앙당이 책임지고 여성후보를 발굴 · 지원하여 최종적으로 지역구 출마후보의 30%를 여성후보로 선출되도록 한다는 방안”을 마련하여, 총 46명(44.6%)의 여성 후보를 지역구에 출마시켰으나 모두 낙선했다. 더구나, 지난 2004년 총선에서 민주노동당 비례대표로 당선되어 이번 총선에서 지역구에 출마한 4명(심상정, 이영순, 최순영, 현애자) 모두 낙선했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는 민주노동당의 분열로 진보신당과 민주노동당으로 나뉘지고 당의 정비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선거를 치렀다는데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겠다.

사. 여성단체의 활동의 저조

17대 총선의 경우 여성계가 연대하여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라는 구심점을 찾고, ‘맑은 정치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100인 여성후보 추천 등의 활동을 하였으나, 18대 총선에서 여성계의 활동은 거의 없었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 는 주요 정당들의 공천심사가 늦어지는 가운데 정책선거보다는 이미지 선거를 만들었고, 유권자들이 등을 돌리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선거 양상은 결국 여성후보에게 불리하게 작동될 수밖에 없는데도 여성계가 이런 정치 풍토를 바꾸는데 미진했다. 더구나, 전문성과 도덕성을 갖춘 여성 후보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이들이 정치권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데 소홀했다.

IV. 향후 과제

결론적으로 성별 대표성은 의회 입법과정에서의 여성 관련 쟁점의 표출과 정책의 본질, 그리고 정책결정과정 자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보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1. 국회 및 지방의회 지역구 30% 여성후보 공천할당제 의무제로 개선 및 인센티브 제공

앞에서 간략히 살펴보았듯이, 17대 국회에서 여성관련 법률안이 급격히 증가하였는데, 이는 그동안 여성관련 법제가 신설, 발전됨과 함께 여성문제를 개인적 차원이 아닌 국가·사회적 차원의 문제로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성친화적 정책을 수립하려는 분위기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보다 중요한 점은 여성위원이 16명이었던 16대 국회에 비하여 17대 국회에서는 41명으로 여성국회의원의 수가 증가함으로써 여성친화적 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여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미국과 스웨덴의 경우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미국이나 스웨덴의 경우도 여성의원들이 증가되면서 여성관련 법안의 발의 및 제정이 늘었고, 여성 특유의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다. 더욱이 모든 상임위에 성인지적 의정활동이 담보되기 위하여는 반드시 여성이 포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통일외교통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자원위원회 여성의원

비율이 10% 미만이고, 건설교통위원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는 1명의 여성의원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각종 선거에 있어 여성의원 비율을 늘리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현재 노력사항으로 되어있는 지역구 국회의원 여성후보 추천 30%를 의무사항으로 전환하는 제도적인 개선책과 함께 이를 지킨 정당에 대하여 국고보조금의 30%를 추가로 지급하는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여성추천보조금은 등급별(30-15%, 15-10%, 5-10% 여성후보 공천)로 차등 지급하고 있다.

2. 주요 정당들의 당선가능성이 높은 지역구에 여성후보 전략 공천 확대 및 여성후보끼리의 경쟁 구도 사전 방지

18대 총선의 경우 한나라당이나 통합민주당의 경우 경기도나 수도권의 경우 여성후보를 전략 공천한 경우가 있는데, 이를 각 당이 유리한 전국적 지역으로 확산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여성후보끼리의 경쟁구도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요구된다.

3. 비례대표제 여성할당제 보완

여성의 경우 최종 당선이 확정된 41명 중 27명이 비례대표로 여전히 그 비중이 높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비례대표와 관련하여 여성에 50%를 할당하고 홀수 순번에 여성을 공천하도록 하는 강제규정을 포함하고 있지만, 이를 어길 경우에 후보자 명부 수리를 불허하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일부 정당에서는 최소한의 비례대표 할당조차도 지키지 않았다.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까지도 비례대표와 관련하여 여성에 50%를 할당하고 홀수 순번에 여성을 공천하도록 하는 강제규정에 근거하여 이를 어길 경우 선관위에서 접수하지 않는 방향으로 선거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4. 공천과정 및 공천심사위원회에 일정비율 여성참여 의무화 제도 도입

공천심사위원회에 일정 비율 여성위원의 참여를 의무화하여 공천과정에서 여성의 대표성을 확보해주는 조치가 필요하다. 그간 우리나라의 정당에서 구성한 공천심사위원회의 경우 대부분이 남성 주요 당직자로 구성되어 왔다. 단지, 16대 총선이후 여성의 일부를 공천심사위원으로 하고 있는데, 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의 경우 13명중 공천심사위원 중 4명(30.8%), 통합민주당은 12명의

공천심사위원 중 1명(8.3%)이었다. 따라서 정당들은 앞으로 공천과정의 투명성 확보 및 여성이 배제되지 않도록 공천심사위원회에 일정비율 여성위원 참여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

5. 여성정치인의 지속적인 육성 및 발굴 시스템 구축

본원에서는 4월 9일 18대 총선이후 4월 19-23일까지 만 19세 이상의 남녀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여성후보가 출마한 지역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정치의식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유권자들은 여성후보가 출마한 의미에 대하여 “남녀평등에 기여했다고 생각한다”가 38.7%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그런데, 주요 정당들의 여성후보 공천이 낮은 이유에 대해 “정당들의 여성후보 발굴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 때문에”가 41.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아울러, “바람직한 여성국회의원 비율”은 “지금보다 증가해야 한다”가 62.1%로 가장 높았다. 지금이 적당하다가 20.6%로 나타났는데, 여성국회의원 증가 방안으로는 “능력 있는 여성정치인 육성”이 61.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유권자들은 정당의 역할로 “여성정치인 육성” 및 “여성정치인 발굴”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간 정당들은 비례대표제 여성할당제를 도입했다는 명목하에 여성후보 육성 및 발굴이 소극적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각 정당들은 여성의 경우 주요 당직 및 고위직 여성참여를 확대하여 여성정치인 풀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6. 남성 정치인의 의식변화를 위한 성인지 프로그램 도입

각급 의회 및 주요 당직에 여성의 참여가 낮은 이유 중의 하나는 바로 기득권을 가진 남성정치인들이 여성에 대한 이해 부족과 때로는 무의식적으로 나타나는 고정관념에 근거한 여성비하 의식 때문이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의 극복을 위하여 여성문제에 대한 이해를 돕고 정당내 남성정치인의 의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정당 연수원의 교과과정에 도입하여 정기적으로 여성문제에 대해 학습하고 토론의 장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7. 여성단체의 지속적인 연대활동 전개

이번 총선에서는 여성계의 활동이 저조하였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는 여성가족부의 해체문제 등 대선의 영향과 주요 정당들의 공천지연 등의 원인을

들 수 있다. 일본의 경우 민주화와 함께 시민섹터의 영역이 줄어드는 결과 여성의 정치참여가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여성계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연대활동의 전개와 함께 여성정치인 발굴, 지원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

<참 고 문 헌>

- 김원홍, 김민정, 이현출, 김혜영(2003), 「지방의회 여성의원의 국회진출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김원홍, 김은경(2004), 「제17대 총선에서의 여성후보 선거과정과 향후 과제」, 한국여성개발원.
- 김원홍, 윤덕경, 김은경, 이현출, 최정원, Aie-Rie Lee, Kazuki Iwanaga(2006), 「17대 남녀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성차분석 및 성인지성 확대방안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미간행).
- 김형준(2008년5월2일), “18대 총선과 여성의 정치세력화”, 「21세기 정치연합 발표문」.
- 오유석(2008년 4월 21일), “여성공천과 정치참여 현실 어떻게 볼 것인가?”, 「4.9총선 평가 간담회」,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 17대 총선을 위한 여성연대(2004), 「2004년 제17대 총선 정당 여성공약 평가 발표 기자 간담회」.

지정 토론 결과

□ 지정토론1 : 여성후보 공천과 향후과제

1. 홍 미 영 의원(통합민주당 17대 의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의 이러한 연구는 꼭 필요한 작업이라는데 평가, 공감합니다. 김경애 원장님의 “지방자치와 여성정치세력화”라는 책에서 공감하며 구의원 시절부터 노력해왔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서기까지 많은 여성들의 지지와 협력, 한국사회의 민주화를 바라는 힘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 공천에서 탈락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13년간 정당정치를 경험하면서 여성공천이 선거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점이라는데 절감하여 차분히 지역구출마를 준비해왔습니다. 후원회 사무실을 누구보다 먼저 지역구에 두고, 의정보고서나 보고회도 꾸준히 하면서, 인천시당의 여성위원장도 4년간 맡았으며, 당에 헌신한 부분이 반드시 공천에 반영되리라 생각하면서 당내 역할도 열심히 해왔습니다. 원내부대표2회 역임, 여성가족위 간사, 예결특위, 2007 대선 선대위원장 등 당내, 당외, 원내외 활동 등을 열심히 해왔습니다. 예비후보등록도 먼저하고 활동도 열심히 했다.

- 공천과정에서의 문제점 -

중앙당차원에서 여성후보 공천의지 부족했다는 점이 결정적 요인었다고 생각합니다. 선출직의 여성할당을 중앙당에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경선 20%가산점도 하향되었으며, 무엇보다도 공천심사위원회에 여성위원 1명이었고, 나머지 공천심사위원들도 외부에서 영입하여서 그간의 당내에서 헌신하였던 점과 여성리더십센터를 통한 역할을 인정해 줄 수 있는 당내 공천심사위원이 아니었기에, 아무리 열심히 했어도 그간의 공을 인정받지 못한 점에 대해 아쉽게 생각합니다. 특히나 지도부에 의한 벼락치기 공천으로 자리를 뺏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공천으로 진보진영 여성후보 진출이 적어졌습니다. 더구나 시기적으로 대선직후의 총선이어서 당대표가 변하면서 전체정당을 위해 해왔던 노력이 간과되었습니다.

지도부의 변화때마다 약속이 달라져왔습니다. 당지도부가 여성들을 추천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하는 강한 압박감을 갖도록 제도적으로 강제해 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이나 민주노동당에 비해 여성공천에 인색하고, 메리트에 대해 포기한 점, 주요당직에 여성들이 있지 못하며 진출기회가 적다는 점에 대한 당내 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여성계가 여성가족부 해체문제로 여성후보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성정치인들의 생존에 대해 오늘 토론을 통해 정립되기를 희망합니다.

2. 이 은 재 당선자(한나라당 18대 의원 당선자/비례대표/공천심사위 위원)

선거후 이러한 연구의 자리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나라당에서 여성과 관련된 공천과정 등 제가 느낀 여러 가지들을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총선은 대선직후 충분한 준비시간이 없이 촉박했습니다. 한나라당은 지역구 여성후보 30%할당을 꾸준히 주장해왔습니다. 지역구별로 여성들이 공천신청을 했을 경우 여성들에게 일정한 가산을 주는 것은 없었으나 13명중 4명이 여성 공천심사위원이었습니다. 4명의 여성의원들이 목소리를 높여서, 같은 조건이면 여성에게 공천을 주도록 했습니다.

경상도의 경우 박근혜전대표를 제외하고는 여성후보자가 이재순씨 단 한명 뿐이었습니다. 이재순씨의 경우에는 신청한 지역구에 뛰어난 능력의 뛰어난 현직국회의원이 있어서 그 옆지역을 배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비록 선거에서 실패했지만 지역별로 가능하면 여성들에게 많은 배려를 하려는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여성 공천 신청자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또한 공천후보자들도 기존에는 여성NGO출신들이 많았으나, 18대 총선 공천신청자들의 대다수가 법조계 출신이었다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공천심사과정에서 중요하게 생각하였던 것은 그 지역내에서 얼마만큼의 인

지-지지도 및 인지도-선호도를 가지고 있느냐였습니다. 그런데 여론조사결과 여성후보자들이 인지도 향상에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들이 공천을 신청하면 저희가 2차에 걸쳐서 공천을 했습니다.

1차 - 면접 후 여론조사를 통해 3명을 선발하여 3배수안에 여성이 들어가도록 조정하였고, 2차 - 예상 상대후보와의 여론조사를 통한 비교우위 감안하여 선정하였습니다. 2차 선정의 경우에도 나경원, 고경화 의원 등 여성들의 전략공천이 행해졌습니다. 이것이 17대 공천과 차별화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천심사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느낀 점은 여성능력개발에의 아쉬움입니다. 얼마전까지만해도 한나라당에서는 각시도별 및 중앙당 차원에서의 여성정치학교 등을 해왔는데 앞으로도 여성정치인 발굴을 위하여 여성정치학교, 여성정치 네트워크를 만들어 인적풀을 확장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여성들 중에서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되면 본인을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 방법론적 측면에서 살펴볼때 이번에 당선되신 분 중에 검사로 재직하는 동안 아동문제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그 지역 학부모 네트워크의 추천과 권유로 공천신청을 하게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결국은 자기분야의 대단한 전문가가 되면 여성정치인의 기회가 열린다는 점입니다.

한나라당은 이번에 공천심사위원회에 여성이 4명이 들어갔기 때문에 일치단결하여 여성의 목소리를 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천심사위원회 꼭 여성이 30%이상 배정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연구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 지정토론2 : 지역구 여성후보로서의 출마와 향후과제

1. 김 회 정 의원(한나라당 17대의원)

이전 당 공천심사 부장과 당 공천심사위원을 거치면서 느꼈던 점도 포함하여 크게 향후과제 측면에서 3분류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 거시적 선거제도가 여성진출을 위해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가

선거제도의 경우 큰 틀에서 논의되어야 하는 것이기에 지금현재 제도적 큰 틀을 손질하지 않고 여성을 배려할 수 있는 방법중 가장 큰 것이 교호순번제를 지키지 않는 정당에 대한 접수거부를 명문화 하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일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지방선거때 16개 시도 중 일부시도에서 적용했던 방법인데 70% 이상의 여성을 비례대표로 선정해서 사실상 비례대표를 여성전용선거구제를 대신하는 방식으로 배려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해야하는가, 다른 소수 약자들도 많지 않냐는 반박에 대해서는 그 소수계층을 대표하면서 동시에 여성인사람을 택해서 두가지 대표성을 가지게 하면 될 것입니다. 이 두가지가 지금 선거제도에서의 큰 틀을 바꾸지 않고 행할 수 있는 방법일 것입니다.

나. 정당차원의 공천에서의 여성배려

한나라당의 경우 여성 공천심사위원회에 여성이 30%이상이 되면서 여성에 대한 배려가 행해졌습니다. 그런데 30%가 하는 역할이 크긴하지만 휘둘릴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나머지를 차지하는 남성들은 당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성들의 경우 외피적으로 당에 대해서 알지, 사실 정보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싸움의 경우 정보가 많은 경우 이기게 되어있습니다. 실제 공정한 게임을 한다고 해도 당지도부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특정후보에 대해 유리한 정보만 제공하고 불리한 정보를 가리는 순간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과연 여성위원들에게 충분히 축적이 되었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여성이 공천심사위원회에 들어가느냐에 있어서 수적인 여성공심위원의 증가도 중요하지만 질적으로도 단련되어서 실제 여성과 관련된 정보들도 많이 가지고 있어서 당에서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정보이외의 정보를 가지고, 여성공천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단단함이 바탕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중진 여성의원들의 경력에 대한 인정을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여성 공천심사

위원장도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 캠페인 과정에서 여성에게 적합한 선거운동 방식, 여성후보의 장단점

김원홍 박사님 발표내용에서 가뜰이나 여성후보자 수가 적는데 정당차원에서 여성 vs 여성 경쟁구도를 조장하는 것은 여성계의 피해이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필이면 그런 지역구를 봤더니 의정활동 평가가 굉장히 좋은 여성의원들간의 대결이어서 저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한편으로는 오히려 여성 vs 여성 경쟁구도 환영할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성 vs 여성의 구도일때 특히나 두 후보가 주요정당의 공천일 경우에는 그 지역구의 당선자는 여성이라는 것으로 기정사실화 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알게 모르게 언론에서 여성 vs 여성구도로 한정하여 보도하여 제3의 남성 후보자(두명 중 한명보다는 우세한 측면이 강한)보다 두 후보가 이득을 보는 측면도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여성 vs 여성은 정책대결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제 경험으로 비추어볼 때 여성들 간의 대결에서는 이념적 성향이 판이하게 다른경우에도 정책대결 양상이 되지만 여성 vs 남성의 경우, 선거분위기가 조직대결의 양상이 되어버립니다. 이 경우 여성후보가 손해를 보게 되어있기 때문에 여성 vs 여성 구도가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캠페인 부분에 있어 공천과정에 있어서 지난 17대 때 저는 ‘맑은정치여성네트워크 102인 지지선언’에 선정되어 굉장히 득을 봤습니다. 그리고 총선여성연대의 활동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누구의 손으로 여성을 이슈로 만들어야 되냐에 있어 공천과정이나 선거과정에 있어서 이번 선거만큼 여성이 이슈화되지못한 선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예 여성이라는 것은 이슈가 되지 못했고 여성계도 움직이지 않았습다.

그러면 여성계가 움직이지 않은 것과 관련해 (나.)공천과정과 연결해서 설명하자면 당과 상관없이 각 여성계와 여성이 주축이 된 직능단체에서 각 당의 대선후보에 대한 열성적인 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기정책반영을 통한 지지도 있었습다만 사실 그 대표를 통한 비례대표 선정에 대한 기대감에 의한 지지도 없지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사람들이 많이 있을

텐데 실제 공천의 자리는 한정되어 있기에 자기가 속한 단체에서 공천을 받지 못하면서 공식적인 지지철회를 한 경우도 있었고, 공식적인 지지철회는 아니었지만 사실상 의욕을 상실함으로써 다른 공천받은 여성을 도와줄 원동력을 잃었습니다. 대선과 총선이 연이어오고 거기서 배려해야할 여성단체가 많이 늘어남으로 인해 오는 현상 거기서 여성계가 많이 와해되는 현실을 현장에서 많이 느꼈습니다.

여성계는 원동력을 잃지 않도록 여성단체나 여성 직능단체 등 서로 돌아가면서 그들의 대표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파이를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세가지를 관통하여 몇가지 말씀드리자면, 우선 남성들을 조력자로 만드는 과정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회에도 여성후보와 맞붙었던 남성후보자들, 남성공천심사위원들을 초빙하여 폭넓은 시각의 논의도 필요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번 선거를 통해서 단순히 남성-여성에서의 여성 말고 지방여성에 대한 논의주제를 별도로 잡아야하지 않겠느냐고 느꼈습니다. 실제 김원홍 박사님 발표내용에서도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지역구 여성당선자가 조배숙, 박근혜의원 두 분뿐이라고 하셨는데 17대에서도 마찬가지로 3명뿐이었습니다. 그랬기때문에 특수한 상황, 선거이후의 지역관리로 인한 다음 번에 여성세를 끌어오는데 기획력이나 홍보력 이외에 조직력이라는 난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별도로 지방여성이라는 이중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섹터를 나누어 따로 논의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제기한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으로서 (가)항목에 대해서는 새로 당선되신 분들께서 새로 개정안을 만들어주시길 바라며 (나)에 대해서는 앞으로 꾸준한 준비를 (다)에 대해서는 비례대표 공천을 받으신 여성분들께서 공천을 받은 여성지역구 후보자들의 지원유세에 함께 하셨느냐하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문화상의 문제인데, 이것인 차기 당선자들의 모임을 통해 분위기를 조성하는 방향으로 짚고 넘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전체 마무리를 하자면

여성당선자 증가율이 정체한데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7대 때 확대된 폭이 18대에서 기하급수적으로 더 넓어지지 못한 것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18대 당선자들께서는 초반부터 자기의 직능대표성과 아울러 지역구 확보에 전략적으로 임해야 할 것이고, 그런부분에 있어서 여성문제를 오랫동안 다루어주셨던 분들에게서 많이 신경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원외 지구당여성위원장으로 관심 부탁드립니다.

2. 송 옥 주 후보(통합민주당 경기 화성 갑 후보)

저는 18대 총선 통합민주당 경기 화성갑 후보로 출마했습니다. 제 경험담을 말씀드리면서,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여성들이 더 많이 정치참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는가에 대해 고민해왔던 것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13년간 정당에서 활동을 해왔습니다. 거기서 갖춘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화성최초 여성후보로 출마했고, 현재 통합민주당 여성국장으로 있습니다.

여성국에서 국회의원 공천과정에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서 많은 행동을 했습니다. 당지도부와 공천심사위원회에 여러차례 성명서와 건의서를 발표하고 전달했으며, 심지어 최고의원회의장 앞에서 피켓시위도 여러번 했습니다.

저희가 주장한 부분은 당선가능권내 여성 전략공천 30%할당, 경선시에 여성가산점제를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런 결과가 당선가능권내 전략공천에 대해서는 전혀 지켜지지 않았으며 출마자가 없거나 취약한지역에 대한 여성 전략공천 명분으로 두명이 공천을 받았으며 그 중 한명이 저입니다.

화성은 도농복합지역이며 상당히 보수성향이 강합니다. 공천에 있어서도 당직자에 대한 비례의 배려가 없었는데 그래서 당직자끼리 연합해서 당대표를 면담하고 당직자들 중에 지역공천을 해달라고 건의하여 남성 1명, 여성 1명이 공천을 받게 되었습니다. 화성지역이 이번에 분구가 되면서 제가 여성이자 당직자 신분으로 전략공천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분은 대구북

갑의 이은주 후보였는데, 이분도 대구에서 어려운 선거를 겪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전략공천, 벼락공천을 받게 되어서 후보등록 첫날인 3/25 오후 1시에 공천을 받아서 13일간 선거운동을 하게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화성에 후보가 출마하지 않을거라 생각되어와서 지역유권자들이나 당원들이 많이 걱정도 하였고 호기심도 상당하였습니다. 저에대한 인지도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저를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했습니다.

‘화성에서 온 여자’라는 슬로건을 내세워서 젊은 유권자나 학생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알려가면서 선거를 치루게 되었습니다.

화성이라는 지역은 서울의 1.3배에 달하는 넓은 지역입니다. 때문에 넓은 지역의 읍,면,동 지역과 관련 공통된 공약 찾기 힘들다었는데 짧은 기간동안 지역과 관련된 독특한 공약을 찾기는 힘들었습니다.

화성지역은 지역명에 대해 안좋은 인식이 강합니다. 여성이나 아동 어르신 치안 부분들에 대한 관심이 많았으며, 지역에 대한 불만들이 많았는데 이에 특정계층을 대상으로 정책공약을 제시했습니다.

대운하저지와 관련되어 이슈가 되어있었기에 대운하저지에 따른 비용으로 틀니 지원, 고등학생 수업료 면제, 범죄없는 안전한 화성만들기 프로젝트, 여성과 아동에게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 등이 좋은 반응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직이 중요한데, 화성지역이 우리당을 거쳐 통합신당, 통합민주당으로 오는 과정에서 당원조직이 거의 와해가 되었습니다. 선거에서도 계속패배했으며 조직원들 사기도 저하되어있는 상태에서 흩어져있는 조직을 모으는 부분이 중요했습니다. 중앙당 당직자라는 낙하산 인식으로 외면받았으나 새벽시간까지 성심성의껏 노력하여 감동을 드렸는지 도움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성추천보조금과 관련하여 여성분들이 출마할 때 자금문제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 여성추천보조금제도가 지난 지방선거에서 최초로 도입된 이후 두 번째로 도입된 부분이었습니다. 통합민주당, 한나라당, 민노당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통합민주당은 여성국에서 여성정치발전비 중 일부를 여성

출마자들에게 지원했습니다. 많은 부분은 아니지만 여성출마자들에게 도움이 된 것으로 자평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정치세력화나 정치참여가 구호나 외침이 아니라 현실적인 부분들을 찾기위해서는 다양한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총선에서는 여성연대가 중요함에도 많이 취약했던것 같습니다. 여성국차원에서 여성의 정치참여나 공천을 강화하기위해 수차례 행동을 보였는데, 당내의 여성정치인들 중 많은 분들이 신경을 쓰지 관심부족 및 당지도부에서 여성공천에 대한 열의 부족했습니다. 2년후 지방선거, 4년후 총선에서는 이러한 점들이 좀 더 강화되어야겠습니다.

17대 총선때는 여성의원들이나 여성정치인에 대한 모임이 활성화되었다고 들었는데 이번에는 많이 취약했던 것 같습니다. 여성연대, 여성정치인 네트워크 모임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디에서 주도를 하던 이러한 모임이 다시금 활성화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당직자로서 후배정치인으로서 선배 여성정치인들에 대해 아쉬운점이 많았습니다. 비례여성의원들이 많음에도 지역구 출마가 적었습니다. 비례의원들의 지역구 출마에 대한 준비를 통해, 여성참여의 모범케이스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공천과정에 여성신청자가 별로 없었는데 유능한 여성 예비정치인 발굴 프로젝트가 필요할 것입니다. 여성정치아카데미 재정비해서 많은 좋은 여성정치인들을 양성해야 할 것입니다.

여성추천 보조금이 ‘유권자 수 x100원’으로 계산되는데 이 금액을 각 정당의 국고보조금은 ‘유권자 수 x 80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여성추천을 30%한다고 하는데 800원의 30%로 금액을 높이는 방향을 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에서 어르신들로부터 여성의원들이 깨끗하게 정치도 잘하고 열심히 한다고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여성들이 뭉쳐서 당을 초월해서 여성이 제대로 정치참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3. 이 영 순 의원(민주노동당 17대 의원)

여성의원들이 낙선한 이후에 충분한 활동을 할 기회가 적습니다. 향후 발전적 활동을 위해 준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17대, 18대 총선을 비교하였을때 18대가 발전했는가에 대해 전혀 발전하지 못하고 후퇴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17대는 비례대표를 확대하였으며 30%할당의무화, 비례대표 50%공천 등 제도개선을 이루어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당연히 하게 하는 분위기를 조성한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18대에 한 단계 발전적인 선거제도를 입법화시키는 일을 전혀 하지 못하였습니다. 특히 여성의제같은 경우는 말도꺼내지 못하는 분위기에서 17대 국회가 마무리 된 것은 정치적인 후퇴라고 평가합니다.

후퇴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조금 더 아쉬운 것은 여성계전반의 문제는 무엇이었는지 평가를 해 봐야겠습니다. 비례대표확대, 여성젠더의식 확대에 관한 제도를 만들어내야한다고 17대에는 여성계가 통합된 목소리로 이슈화를 시켰습니다만 이번에는 전혀없었습니다. 지금에 만족하는 느슨한 의식들이 있었는지에 대해 더 평가를 해야 할 것입니다.

여성들의 앞으로의 발전을 위해 해야할 여러 가지 과제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제도개선을 위한 통합된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선거의 공천과정에서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3대당 지도부중에 한분에게 여성의 지역할당에 대해 물었을때 ‘남자들 줄 것도 없다’라는 말을 서슴없이 하는 등 17대에서는 각 당마다 진보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안되는 분위기였지만 이번 18대에서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여성을 내세우지 않아도 되는 분위기라는 것을 읽었기에 그런 말이 자연스레 나온 게 아닌지, 이에대해 여성계가 다같이 분발해야한다고 절감했으며 다같이 평가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어렵사리 공천받은 여성들이 다양한 각계에 진출하기 위해서 과연 여성후보끼리 경합을 벌이는 것이 적합한가에 대해 고민해 봐야합니다. 이것은 여성들의 다양한 진출기회를 막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공천에서 민주노동당은 획기적인 공천을 했습니다. 40%이상의 여성을 지역공천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여성들을 공천금을 노리고 무리하게 내세운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비판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민주

노동당이 어려운 시점에 여성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당을 살리려 노력했다는 점은 칭찬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비록 충분한 준비는 미흡했지만 출마했던 여성들의 경험이 정계진출 및 의식발전에 긍정적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진보 정당이라 하더라도 여성에게 기회게 많은 것은 아니었다. 이번 총선을 통해 많은 여성들에게 기회를 준것은 중요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성후보 발굴이 어렵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충분히 할 수있다고 생각하고 미리 인재를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렵게 이루어낸 여성들의 공천은 당연히 여성을 정치권에 진입시킬 수 있도록 중요한 기회를 만들어야합니다. 선거에서 여성이 남성과 다르게 정치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어야합니다. 바로 남성과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여성도 할 수 있다”는 정도만 보여주고 있는 수준입니다. 여기에 머물러서는 전혀발전하지 못합니다. 30%할당의 의미가 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총선은 정책선거도 아니었고 정치적이슈도 없었습니다. 대선에 이어 총선이 이루어져 당 중심의 선거가 이루어져체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고민하면서 향후에는 여성이 남성들과 비교해서 무엇이 다르고 이것이 우리 삶에 어떤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와닿을 수 있는 여성들의 장점을 정책적으로 연구, 한단계 발전한 정책이슈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굉장히 아쉬웠던 점은, 당마다 여성지원에 대해 고민하면서도 자금지원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점입니다. 자금지원뿐 아니라 조직, 정책지원도 제도화하는 방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이번에 시민사회, 여성계가 힘을모아 17대 의원들의 의정활동평가를 여성계 기준으로 평가해보았으면 하는 아쉬움을 갖습니다. 과연 각 상임위마다 여성의원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그 여성들이 여성의제들을 충실히 해결해왔는가, 17대 국회의원 전반의 젠더의식이 어느정도인지 평가하면서 ‘이 여성은 18대에 더 필요한 여성이다’ 공표하면서 전략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단순히 자금지원만으로는 여성들이 정치권에 진입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4. 오 유 석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대표)

저희가 총선전부터 총선이후 많은 논의들을 하면서 일정부분 공감대를 형성하였는데, 우선적으로 굉장히 모순된 말씀들을 하고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껴주셨으면 합니다. 총선에서 여성후보자들에 대한 여성계의 지원이 적었다는 지적을 하시는데 여성계가 여성의원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성계라고 지칭되고 있지만 여성계의 방점을 어디에 두느냐는 오래된 논의입니다. 여기서 여성계란 의식적인 측면에서 소수자로서의 여성문제를 다루는 단체를 말합니다. 여성들 중에도 굉장히 다수자 못지않은 권력과 기득권을 가진 여성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여성들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은 여성단체들이 운동을 통한 여성의 권익향상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하지만 수도권이나 서울에 비해서 지방의 여성단체들이 과거의 관주도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서울과 수도권의 여성단체들이 보다 더 지역의 여성운동 조직들을 변화시키고 바꿔내는데 노력해야 하고, 저희도 나름대로 그것을 바꿔내지 못한 한계들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존재하고 있는 여성계, 앞서 언급한 여성계들이 우리가 말하는 여성계라고 대표될 수 있는가, 실질적으로 이익단체들인데 (물론 비례는 직능대표이기 때문에 이런 이익단체들이 참가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리고 그런 방법들로 우리가 비례를 도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시적이지만, 헌법의 성평등에 위배됨에도 불구하고 비례제도를 우리가 제도개선을 통해서 만들어내고 그 50%를 여성에게 달라는 어떤의미로 보면 무지막지한 요구의 근거를 마련해 냈습니다. 또한 이 사회에는 많은 소수자가 있지만 여성이라는 소수자가 누구보다도 더 정치권력에서 소외되어 왔던 목소리들을 해왔기에 50%를 통과 시켰습니다. 실질적으로 그간 여성단체에서는 비례대표50%에 대한 근거마련 및 비례대표 후보 여성명단작성(소수자로서의 여성을 대변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등의 노력을 해왔습니다.

18대 총선에서 여성계의 지원부족에 대해서 다들 말씀하시는데 대선후 바로 총선준비를 하면서 현 구조상에서 여성계가 정당공천에 관여하기 어렵다는 것을 여러 여성의원님들께 밝혔습니다. 또한 18대 총선이 끝난 후 여성

계의 지지를 호소함과 관련하여서 과연 정당내 여성의원들 스스로가 여성계가 원하던 의제들을 반영했는가(정당을 초월한 지속적 연대, 여성정치력확보)자문해 보아야할 것입니다.

여성가족부폐지와 관련하여 소수자 여성문제를 다루기 위한 다른 제안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여성가족부의 폐지에 대해 여성정치인으로서 최소한의 노력을 기울였는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정당정치의 측면에서 당론을 충실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이를 존중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대의제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원론하에서 여성정치인으로서 여성을 대변해야하는 두 가지 대표성을 갖는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소수자 여성을 대변하는 여성정치인으로서 과연 여성가족부 폐지와 관련하여 당론을 넘어서서 국회의원으로서 자기가 가져야할 국가정책전반에 대해 당론을 넘어서서 얘기할 수 있는 책임을 다했어야 합니다. 최소한 17대에 102명의 명단속에 들어서 국회에 진출한 여성국회의원들은 한번이라도 연대를 통해 의견을 밝혔어야 했습니다.

여성단체들의 활동이 저조했다는 것에 관련하여 그렇지 않았다고 우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단체들은 과거의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대표들 만날 수도 없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여성계가 무엇을 할 수 있었습니까. 17대 때에는 그래도 안만나면 안될 것 같은 분위기에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정당에 들어가있는 여성정치인들은 정당내에서 자기 색깔을 내겠다고 하는데, 여성의 정치세력화 특히, 정당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세력화는 여성계가 그 부분에 관련하여 할 수 있는 여력은 별로 없다고 생각하고 그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계가 영향의 정치를 미치는 힘이 이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많은 경우에 여성계는 총선이나 이러한 정치세력화 보다는 풀뿌리로 갈 것입니다. 다른 의미지만 지방으로 갈 것입니다. 중앙의 여성국회의원들이 아무리 잘해도 지방권력하에서 지방에서 여성의원들이 하면 잘한다는 것을 체험적으로 느끼려면 이것은 중앙의 여성들이 할 일이 아닌 지역의 여성들이 할 일입니다. 운동의 중심을 중앙이 아닌 지방으로, 정치세력화 보다는 일상에 근거한 풀뿌리 운동으로 중심이동 할 것입니다.

□ 종합토론

김경애 원장님

대선 경선과정에서 여성들의 약진으로 여성정치 참여가 많이 약진했다고 생각했으나, 총선이후 후퇴해서 그간의 노력들이 무너진것 같아 아쉽습니다. 특히 16대 노력에 비해 17대에서는 여성의원들의 정치연대가 사라진것이 아쉽습니다. 18대 총선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공천, 비례)들이 있었습니다. 18대 총선에서 여성정치세력은 후퇴하였습니다. 더 많은 연대와 노력에 희망을 걸고 노력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조성미 경기도의원

지방의회에도 개선해야 할 제도들이 산적해있습니다. 그중 여성의원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없다는 것에 큰 아쉬움을 느낍니다. 지방의회 여성의원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면 그들이 향후 국회에 진출하여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성국회의원들을 외부세력에서 영입해오는 행태에서 벗어나서 여성단체들의 의식변화, 제도개선을 통해 기초단체의원에서 국회로 진출할 수 있는 통로마련을 위해 노력해주셨으면 합니다.

조배숙의원 여성정책담당비서

저는 이번 선거를 수행하면서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15, 16대에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기 위해 초당적 모임이 많았지만 17대에서는 초당적 모임을 가질만한 이슈가 부족했던것 같습니다.

지역경선과정에서 남성경선출마자가 여성할당제는 여성정치 신인에게나 필요한 것이라고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이에 대한 논리 마련이 시급하다 생각합니다.

홍미영 의원

91년 스웨덴의 ‘서포트 스토킹즈’의 사례가 사민당에서 여성을 40%할당하게 하는데 압력을 준 사례가 있습니다. 여성계의 꾸준한 관심과 감시가 필요하다.

김원홍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일본의 경우 여성계의 지지가 없어지자 여성의원 비율이 대폭감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여성계의 꾸준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김희정 의원

당내에서 여성세력화에 실패한 이유에는 당내에서 같은 지역구 출마 이후 와해된 측면이 있습니다. 이럴때를 위해 당외 견제세력도 필요하며 함께 커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여성의 범위에 대한 생각의 차이에 있어서 모든 범위에 대해서 여성으로서의 문제를 다룰 수 있게 여성의원들의 수가 늘어야 하고, 각 상임위에서 모든 주제를 여성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여성 의원이 늘어야 합니다.